

지역문화, 우리가 가꾼다

⑦ 태백 '그림화실'



태백 지역문화운동의 출발점이자 심장부인 상장동 '그림화실'. 가운데 서있는 사람이 화가 황재형씨다.

척박한 땅을 '벽화도시'로

화가 황재형씨 터잡고 시민판화운동 주도

태백/정재숙 기자

태백의 늦어름은 쓸쓸하다. 고지라 날씨는 일찍 서늘해지고 동해로 가기 위해 이 옛 탄광촌을 북적이게 하던 여행객들도 뜸해진다. 폐광을 뒤로 하고 낡아엮여 있는 도시 위로 솟은 '살맛나는 강원건설, 10만 태백인의 힘'이란 대형 입간판은 어쩐지 밋쩍어 보인다.

"지금 태백시 인구는 7만5천입니다. 아마 가을이 오면 더 줄겠지요. 서울로 가는 게 꿈이라는 청소년들을 볼 땐 뭐가 있어야 말이지요? 그걸 찾아내는 게 이곳 문화운동가들의 임무입니다."

화가 황재형(43)씨는 태백을 지나는데 태풍이 지난 약한 이 지역의 땅심을 활취고 갈까 걱정이었다. 일제 때부터 탄광지로 유명한 태백은 하도 석탄을 파내 이제는 밭이 가라앉고 학교 건물이 내려앉는 힘없는 땅이 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광부들이 보조금 5백만원씩 들고 쫓기듯 떠난 태백에 관광단지를 건설하려는 돈 가진 자들의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무조건 태백을 떠야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이야기 마당을 만들고 너와집 등 자랑스런 지역문화를 발굴했습니다. 같이 그림을 그리고 판화를 밀고 풍물을 하고, 한 10여년 이곳에서 뒹구니까 이제 좀 길이 보이네요."

대학시절, 작품을 하기 위해 탄광을 찾아다녔던 황씨는 81년 아예 태백으로 식구들을 불러들여 이 죽어가

는 사, 조용일씨, 강순구씨 등 후배들이 밀고 당기며 도와준 덕에 이제는 뒤편 맘만 먹으면 이휘날 자신감이 쌓인 것이 험했던 지난 세월의 소득이라고 황씨는 말했다.

태백시 상장동 3통4반, 허름한 3층 건물의 2층에 있는 '그림화실'은 태백 지역문화운동의 심장부다. 황씨는 이곳에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며 그들의 부모를 시민판화운동으로 자연스레 이끌었다. 그 1대 제자들이 미술대학을 나와 90년에 만든 <동발지기 동인전>은 지금도 태백시에서 열리는 유일한 연례전시회이자 화제의 문화행사다. 아버지들이 갱내에서 지던 '동발(버팀목)'을 '나눠 지겠다'는 뜻의 이 제목에서 태백의 내일을 자신들이 일궈가겠다는 청년들의 다부진 결의가 보인다.

또 청소년들을 위한 찻집 '라 망뜨'와 태백지역의 전래주거문화인 너와집을 복원해 전통음식점으로 개발한 상장동 4통 2반의 '너와집'은 경영과 문화를 엮은 절묘한 문화상품으로 태백시민들에게 긍지를 심어주었다.

지금 '그림화실'이 꿈꾸고 있는 태백부흥의 묘책은 '벽화도시' 건설과 '국제 벽화 페스티벌' 개최다. 세계 각국의 화가들을 불러들여 태백시 전체에 4백여개의 벽화를 그리고 해마다 벽화를 주제로 한 축제를 연다는 것. 도시전체가 미술관이 되면 태백의 지명도도 높아지고 문화관광지로 이름이 나게 돼 공업단지조성과 관광객 유치에 저절로 이루어지리라는 계산이다.

척박한 땅 태백의 부활은 지역문화